

#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김 형 준\*

## I. 선거 여론조사의 기능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전하는 민심의 차원에서 도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행태와 후보자 경쟁 구도 형성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심리적 효과에 따른 영향력이다.(선우영·이선주, 1998:67). 여론의 형성과 확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대개 소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하여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이 지배적 여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지배하는 의견은 '우세자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에 따라 더 강화되고 소수 의견은 이른바 침묵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잦아들게 된다는 것이다.(선우동훈·윤석홍, 1999:76-77).

예컨대, 월드컵 이후 鄭風(무소속 정몽준의원 지지 열풍)이 강하게 휘몰아 쳤을 때 정몽을 확정한 정몽준의원 지지자들은 어디를 가나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로 정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조용히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정의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한 유권자들은 심리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정의원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 여론조사의 또 다른 영향력은 유권자의 전략적 움직임을 자극하는 효과이다. 전략적 유권자(strategic voter)는 자신의 선호도보다 선거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

---

\* 국민대 정치대학원

로 투표 방향을 결정한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낮은가 등의 정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를 부추긴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의 위험도 따른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경우,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반대로 국민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정치 과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왜곡되면 민주정치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 II.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

현재 대선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후보 지지도와 같은 중요한 현상에 대해 비슷한 시점에서 실시한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직후 비슷한 시점(9월22-25일)에 국내 주요 언론기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추석이후 5명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2強 1中 2弱』 구도로 요약된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30-35%의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독자 신당을 추진중인 정몽준 후보가 30%내외의 지지율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15-20%로 다소 뒤 처진 상태로 3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이한동 전 총리의 지지율은 1-3%로 약세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조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 조사 기관마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표1>에서 보듯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은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거의 차의가 없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후보의 지지도는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동아·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노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낮은 수준인 14.4%였는 데 반해, 문화·TN 소프레스 조사에서는 21.8%로 나와 동일한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기관별로 7.4% 포인트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층의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된다. 5자 대결구도시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의 비율이 1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동아·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3.7%로 나타났다.

한편,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여 통합 신당의 후보로 정몽준후보가 출마하면 이회창후보에 앞서는 것은 조사 기관마다 동일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된다. 중앙일보의 경우, 정-이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0.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약 6-11%의 큰 차이로 정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여론조사기관별 결과 분석 (%)

조사기관	조사일	표본수	후보지지도 (I)						노·정후보단일화		정당지지도					당선가능성				후보지지도 (II)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이현동	모름/ 무응답	비합격자 (선생)	비합격자 양용(한대)	한나라당	민주당	재민련	민 주 노당	모름/ 무응답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정몽준	이회창	정몽준	이회창	정몽준	무응답
한국갤럽 (조선일보)	9월 22일	1,054	31.3	16.8	30.8	1.6	0.9	18.7	39.4	38.4	32.9	20.1	1.4	4.0	39.5	53.3	9.8	14.4	34.9	43.9	3.7	17.5			
미디어리서치 (한국일보)	9월 23일	1,000	31.7	15.9	29.6	2.2	0.9	19.7	35.0	48.9	32.1	18.2	0.8	2.5	44.3	59.3	5.7	11.0	34.5	40.1	5.1	20.3			
미디어리서치 (동아일보)	9월 24일	1,573	32.0	14.4	28.5	0.9	0.5	23.7	-	-	31.5	14.8	0.7	3.1	45.8	-	-	-	34.7	41.7	2.5	21.1			
TNS리서스 (문화일보, YTN)	9월 23~24일	1,000	32.6	21.8	27.1	2.1	0.6	15.8	-	-	37.6	23.0	1.4	4.0	32.1	65.6	9.9	14.7	35.5	46.5	4.8	13.2			
중앙일보	9월 24일	1,036	34.7	18.5	30.9	2.5	0.9	12.5	-	-	28.0	17.1	0.6	2.1	51.5	-	-	-	38.8	39.5	4.4	17.2			

또한 대선후보 지지도와 지역, 연령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조사기관마다의 차이가 심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선 지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표 2>에서 보듯이 조선일보·한국갤럽과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정의원이 노후보를 각각 8.5%와 5.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9월 7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호남지역에서 노후보가 48.2%로 25.3%를 얻은 정몽준의원보다 지지가 훨씬 높았으나 9월 23일 조사에서는 정의원이 36.1%의 지지로 30.6% 지지에 그친 노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중앙일보, 문화일보·TN 소프레스 조사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노후보의 지지율이 정의원보다 각각 5.3%와 10.3% 앞섰으며, 문화일보·TN 소프레스 조사에서는 노후보의 지지율이 50.7%를 기록하면서 23.3%를 얻은 정의원을 27.4%나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TN 소프레스와 조선일보·한국갤럽 두 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만을 비교해 본다면 호남지역에서 노무현후보와 정몽준후보간의 지지율이 무려 35.9%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별 후보 지지율 차이는 호남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서울지역 경우도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문화일보·TN 소프레스 조사에서는 정의원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보다 11.6%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조사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정의원보다 0.4%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지역도 비슷하다. 정후보가 이 후보보다 조선·한국갤럽 4.1%, 한국·미디어리서치 4.8%, 동아·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0.5%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TN 소프레스에서는 이 후보가 정후보를 9.7%나 앞서고 중앙일보조사에서는 2.7%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후보 지지도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추석이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결 같이 정몽준후보는 2-30대, 이회창후보는 4-50대에서 우세가 뚜렷이 갈렸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한국갤럽 조사결과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정의원의 지지가 8.0%에 불과한 반면,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23.8%로 나타나 동일한 연령층에서 동일한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기관별로 15.8% 포인트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여론조사 기관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대선 후보의 지지도 변화 추이이다. 한국갤럽이 추석 전(9월9일)과 추석후(9월 22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후보와 정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했고, 노후보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후보는 30.2%에서 31.3%로 1.1% 상승했고, 정의원은 27.3%에서 30.8%로 3.5% 상승했다. 반면, 노후보는 20.4%에서 16.8%로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코리아리서치가 추석전(9월 7일)과 추석후(9월 24일)에 실시한 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 후보 1.8% 상승, 정의원 1.0% 하락, 노후보의 3.2% 하락으로 나타났다. 노후보 지지가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어느 조사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조사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권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표2〉 여론조사 기관별 대선후보 지지도 분석

구분	조선일보 / 한국갤럽			한국일보 / 미디어서치			동아일보 / 코리아서치			문화일보 / TN스페이스			중앙일보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전체	31.3	16.8	30.8	18.7	19.7	31.7	15.9	29.6	19.7	32.0	14.4	28.5	23.7	32.6	21.8	27.1	15.8	34.7	18.5	30.9	12.5	
성별	남성	31.2	16.6	33.3	15.9	14.0	32.2	16.4	32.8	14.0	31.4	16.0	31.6	19.1	31.4	21.1	30.5	-	34.4	17.5	30.9	12.3
	여성	31.3	17.0	28.4	21.5	25.3	31.2	15.4	26.5	25.3	32.6	12.8	25.5	28.1	33.7	22.4	23.8	-	35.1	19.5	30.8	12.7
연령	20대	18.8	23.5	39.6	15.1	14.3	21.0	26.5	34.9	14.3	21.0	25.0	31.7	20.3	22.8	27.3	31.7	-	20.8	27.8	34.4	11.7
	30대	22.6	20.9	38.9	16.3	17.5	22.2	21.4	34.2	17.5	29.0	16.3	35.8	17.2	25.1	26.9	29.7	-	26.1	21.2	35.0	14.4
	40대	35.3	16.1	27.8	17.3	19.5	35.3	8.8	33.0	19.5	35.4	10.7	29.3	23.1	34.1	17.1	31.1	-	39.6	14.7	30.7	11.5
지역	50대 이상	46.2	8.0	18.4	25.1	26.2	46.2	7.6	18.6	26.2	41.4	6.6	18.8	32.5	47.5	15.2	17.5	-	52.1	10.4	23.8	12.1
	서울	30.1	15.9	34.4	16.1	17.9	30.8	17.0	30.4	17.9	29.2	19.3	31.0	18.4	26.6	20.6	38.2	-	30.1	18.4	31.6	16.9
지역	인천경기	25.1	15.4	36.1	20.7	20.8	26.7	15.7	31.8	20.8	25.7	12.4	32.5	28.4	32.0	22.1	29.3	-	32.2	19.3	34.5	11.6
	강원	40.7	13.4	28.3	17.6	21.2	24.2	12.1	42.4	21.2	36.2	17.2	24.5	20.8	-	-	-	-	30.3	10.8	46.3	12.6
	충청/대전	26.3	16.8	30.4	26.5	19.2	32.7	9.6	37.5	19.2	30.6	4.6	31.1	31.9	36.4	14.5	26.7	-	35.5	12.6	32.8	15.4
지역	전라/광주	5.4	30.8	39.3	21.7	26.3	5.3	35.1	29.8	26.3	5.4	30.6	36.1	27.5	3.9	50.7	23.3	-	7.5	43.7	33.4	10.1
	대구/경북	51.4	9.3	19.9	16.9	8.6	52.6	11.2	25.9	8.6	52.4	6.4	23.1	16.0	51.5	7.5	19.5	-	57.1	8.1	20.5	10.5
	부산/경남	47.8	16.1	20.7	13.5	24.5	44.8	8.0	20.9	24.5	49.0	10.4	17.2	22.1	48.3	14.0	18.1	-	48.8	11.6	25.9	9.0

한국 선거 여론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론조사 보도가 과학적 분석과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채 이른바 경마식 보도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어느 후보가 몇 %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모든 관심을 쏟아왔다. 누가 이길 것인가의 문제에만 보도의 초점을 맞추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관행은 우리 정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설명에 도입되는 변수들은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뿐이었다. 예컨대 젊은 세대가 노무현 또는 정몽준 후보 지지 성향이 높고, 기성세대는 이회창 후보 지지 성향이 높다는 식의 해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왜 젊은 세대가 노무현·정몽준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지지후보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부분적 현상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영남사람들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호남사람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의 설명은 결국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쟁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즉,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 Ⅲ. 선거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쟁점

일반적으로 전화 여론조사는 만 20세이상의 전국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적게는 700명에서 보통 1,000명 정도의 표본추출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을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표집오차(sampling error)'라 하고 이러한 오차는 보통 '표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표본수가 1,000명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이고, 1,500명을 조사했을 경우는  $\pm 2.5\%$ 이다. 따라서, 각 여론 조사기관의 결과는 표본수의 차이에 따라 표집오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별로 표본수에서 큰 차이가 없고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표본추출 방식과 조사 규칙의 준수 여부와 연계된 표집오차(sampling error)와 설문내용의 구성, 조사원 구성, 조사 비용 등과 같은 비표집오차(non-sampling error) 등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할당표집(quota sampling)과 같은 비확률적 표집방식(non-probability sampling)의 남용이 조사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의견과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일이다. 물론 3천만명이 넘는 20세 이상 유권자 전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표본집단(sample)을 뽑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느냐'하는 '표본추출(sampling) 방식'의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표본가구에 전화 통화가 되면 가구원중에서 누구를 면접하는가를 결정할 때 성·연령대에 표본 수를 할당하는 방식, 이른바 '할당표집(quota sampling)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허명회(2002:34)교수가 지적했듯이 “할당표집은 할당변수에 의하여 응답자 속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하다. 그런데, 실제로 동일한 성·나이 그룹에서도 추가적 인구적 속성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 채택률과 조사협조도가 다르다.” 더욱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응답자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자신이 정한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둘째, 조사규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기관별로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조사기관에서 표본가구에 전화를 하는 경우,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0명의 응답자를 얻기 위해 보통 그 다섯 배가 넘는 5,000개에서 6,000개의 전화번호를 뽑는다. 그런데, 그렇게 뽑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대략 60%는 결번, 통화중, 부재중 등의 이유로 통화에 실패한다. 통화에 성공한 나머지 40%중에서도 실제로 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많아야 절반 정도이므로 전화조사 응답률은 처음에 뽑힌 전화번호의 20%를 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sup>1)</sup>

전화조사를 위해 처음에 무작위로 1,000개의 표본 전화를 선정하면 표본전화를 통해 선택된 응답자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정치에 적극적인 사람이 포함되는가 하면 반대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후자보다는 전자의 사람들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A라는 조사기관은 하루만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통화가 안됐을 때 최초로 선정된 표본 전화번호를 바꾼 반면, B라는 조사기관은 부재중일 경우 재통화를 시도하거나 거부한 표본 전화번호에 대해 2차 전화설득을 시도했다면 두 조사기관간에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기존 조사 관행대로 전화를 걸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다른 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한다면 정치에 적극적인 사람이 설문 대상에 더 많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최초 표본 전화에 응실하기 위해 조사를 거부한 사람이나 전화를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재통화를 하거나, 예약을 받아 조사한다면 정치적 무관심층 등 다양한 계층이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조사에 포함되는 응답자 계층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별로 얼마만큼 엄격한 재통화 규칙을 적용하는가, 첫 번째 전화 통화(initial contact)에 얼마만큼 성공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셋째, 조사 설문지(questionnaire) 내용, 설문 순서,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채서일, 1992:294-295). 지난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노풍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인제후보는 노풍의 진원지로 여론조사의 조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인제후보는 한 일간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풍이 출발된 13일의 T&S 여론조사 문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빌라문제를(의도적으로) 거론한 뒤 서민 이미지의 노후보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방송사를 통해 연이어 여론조사

---

1) TN 소프레스는 문화일보의 의뢰를 받아 10월 17일 당일에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4,287회의 전화 연결을 통해 1,000명의 면접에 성공함으로써 23.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를 실시하여 노후보의 급상승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대한매일, 02/03/23). 이에 대해 TN 소프레스에 조사를 의뢰했던 문화일보는 “이총재와 노고문의 양자대결을 처음에 질문하고 이총재 호화 빌라 파문은 마지막 부분에 질문했기 때문에 문항 순서 조작으로 결과를 유도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보듯이 설문순서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후보를 도와 당선에 기여한 이영작교수는 지난 3월 한 월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설문순서의 차이가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금년초에 이회창대세론이 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수는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인제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후보를 앞섰는데 그 이유는 기존 여론조사 기관과는 달리 이회창후보 자체의 병역 비리 의혹, 97년 대선시 이인제후보의 경선불복 등 민감한 선거 쟁점에 대하여 먼저 물어본 다음 맨 마지막에 후보 지지도를 물어보는 설문순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 TN 소프레스 등 3개 조사기관이 9월에 실시한 조사 설문 문항과 순서를 검토해보면 대선 가상 대결 구도에 대한 문항의 순서에는 기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 보듯이 5자 대결구도에 관한 문항은 모두 2번째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다.(김형준, 2002: 170). 특히, 문화일보·TN 소프레스의 경우 5자 대결구도를 처음에 질문하고 ‘이회창후보 아들 병역수사 지속’ 등과 같은 민감한 정치현안은 나중에 물어봤다.

한편, 설문순서 뿐만 아니라 설문문항(wording) 차이도 조사 결과의 차이를 유도할 수 있다.<sup>2)</sup> <표4>에서 보듯이 한국갤럽의 경우는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이회창’씨, 민주당 ‘노무현’씨, 민주노동당 ‘권영길’씨, 그리고 독자 정당을 추진중인 ‘정몽준’, ‘이한동’씨가 출마한다면, ○○님께서 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반면, 문화·TN 소프레스는 “내일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신당의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한동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당선을 선호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후보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지지에 관한 질문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갤럽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님께서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반면, 동아·코리아리서치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한국미래연합 등이 있습니다. ○○님께서 이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좋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정당과 선호하는 정당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11월 15일에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후보가 내선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두 후보 진영은 여론조사 문항이 답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설문문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협상을 벌였다(문화일보, 02/11/16). 왜냐하면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두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등 어느 질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3〉 조사기관별 설문 배열

설문 순서	한국갤럽 (조선일보)	코리아리서치 (동아일보)	TN소프레스 (문화일보)
1	16대 대선 관심도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	대선 투표 참여 의향
2	대선 가상대결 (5자구도)	투표 후보 (5자 구도)	대선 가상대결 (5자 구도)
3	추석전 지지여부	지지후보 변경 가능성	후보별 지지 강도
4	후보 지지 이유 (이미지 : 능력)	대통령 당선 가능 후보	대선 가상대결 (이회창-노무현-권영길)
5	지지 후보 계속 지지 여부	정당지지도	대선 가상대결 (이회창-정몽준-권영길)
6	두 번째 지지 후보	신당 창당시 가상대결 (이회창-노무현-권영길)	정당 지지도
7	대선 가상대결 (이회창-노무현-권영길)	신당 창당시 가상대결 (이회창-정몽준-권영길)	당선 가능성 전망
8	대선 가상대결 (이회창-정몽준-권영길)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수사 지속 여부
9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견해	후보 단일화 성사시 단일 후보 가능성이 높은 인물	노무현 후보 개혁성향 인사 중심 대선 준비 평가
10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	이회창 후보 지지율 변화 예상	정몽준 후보 현대 증공업 지분 위탁 평가
11	정당 지지도	노무현 후보 지지율 변화 예상	후보별 고교 평준화 교육 정책 평가
12		정몽준 후보 지지율 변화 예상	김정일 위원장 담방시기 평가
13			남북자 문제 접근 방식 평가
14			신민주 특구 한국 기업 진출 방식
15			한·미 대북정책의 북한 개방 조치 영향 평가

설문순서와 설문문항이외에 같은 문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한번만 질문하느냐 아니면 추가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조사기관별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에 관한 질문에서 "없다/모른다" 라고 응답한 소위 무응답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최초 질문에서 무응답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추가로 "그래도 어느 후보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 본 다음 그 결과를 최초 지지 응답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령, 중앙일보의 9월 조사에서는 5자 대결시 무응답층의 비율이 12.5%에 불과한 반면, 동아·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3.7%로 두 기관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최초 무응답층에 대한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조사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추론에 불과하다. 다만, 설문 내용과 조사 방식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를 보일 경우 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넷째, 조사원의 자질과 조사원 운용 방식의 차이도 조사기관별로 결과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무시 못할 주요한 요인이다. 조사원은 응답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성실성과 행태가 조사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빠른 조사 완료를 위해 대담을 유도하거나, 심지어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재할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조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시간당으로 조사원 급여를 지불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조사 완료 숫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사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다. 경험이 부족한 조사원이 조사 완료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표4〉 조사기관별 질문 방식

조사기관	후보지지도	정당지지도
한국갤럽 (조선일보)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이회창'씨, 민주당 '노무현'씨, 민주노동당 '권영길'씨, 그리고 독자 정당을 추진중인 '정몽준', '이한동'씨가 출마한다면, ○○님께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님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코리아리서치 (동아일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이회창씨,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씨, 민노동 후보로 권영길씨, 독자신당후보로 정몽준씨, 또 다른 후보로 이한동씨가 나온다면, ○○님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한국미래연합 등이 있습니다. ○○님께서 어느 어느 정당을 가장 좋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일보	만약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제3신당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그리고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이한동 의원이 출마한다면, ○○님께서 어느 이종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이 있습니다. ○○님께서 어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TN소프레스 (문화일보)	내일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신당의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한동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국민당, 미래연합, 민주노동당, 사회당 중 가장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 IV. 선거여론 조사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짧은 선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기존 조사방식에 방법론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이남영, 2000). 국민에게 신뢰받는 여론조사와 선거보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률표집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해 전화번호 예비표본을 추출하고, 통화 가정 내 응답자를 성, 연령별로 임의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가급적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화통화가 성사 되면 '가구내 선택(in-house selection)' 과 같은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응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런 방식만이 통계과학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확률표집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가구내 선택 방식으로 대개 '최근 생일의 가구원 방식'을 채택한다. 즉, 표본으로 선정된 가정에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 면접원은 "가장 최근에 생일을 맞이한 성인이 있으면 바꿔 주십시오"라고 묻는다.<sup>3)</sup>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추출시 확률 표집 방식을 채택할 뿐 만 아니라 재통화 규칙(call-back), 예약시스템 적용, 2차 전화설득(refusal conversion) 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효 표본의 응답률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Groves and Kahn, 1979:57; 안순철·김형준, 2002: 40-42). 이는 조사디자인, 표집과정, 조사원의 수준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응답률이 조사데이터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당일(overnight) 또는 이틀 안에 조사를 완료하는 데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준수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3)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조사에서 최근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할 경우 외국과는 달리 거부감이 크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여론조사에서는 '가구내 선택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조사원은 우선, "선생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 중 성인(만 20세 이상)분은 선생님을 포함하여 몇 분이십니까?"라고 묻는다(Step 1). 그 다음에는 "○명 중 남자분은 몇 분이십니까?"라고 질문한다.(Step 2)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가구내 선택표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Step 3). 예를 들어, 'Step 1'의 응답이 '4명'이고, 'Step 2'의 응답이 '2명'인 경우, '가구내 선택표'(별첨표 참조)에서 가로축 중 '4명'에 해당하는 줄과 세로축에서 '2명'에 해당하는 줄과의 교차하는 셀(42X) 중에서 처음 이러한 집이 걸린 경우는 '421', 두 번째인 경우는 '422', 세 번째인 경우는 '423', 네 번째인 경우는 '424', 다섯 번째인 경우는 다시 '421'에 해당하는 사람과 통화한다. 가구 선택표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예약을 실시하여 재통화를 하고,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도 최소 5회 이상의 재통화를 실시한다. 별첨표에 수록된 가구내 선택표의 기호(괄호안의 번호)는 조사원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날짜에 관계없이) 순환된다. 가구내 선택표의 기호(괄호안의 번호)는 Step 1과 Step 2의 응답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되는 3자리 숫자이다. 예를 들어, '423' 은 4명 이상의 성인이 있는 집 중 남자가 그 중 2명이며, 이러한 집에서 3번째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집이 끝난 뒤 똑같은 성인수와 남자수를 가진 집이 걸릴 경우, 이번에는 '424'에 해당하는 사람이 표본이 되도록 한다. KSDC의 가구내 선택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안순철·김형준(2002)의 논문을 참조할 것.

며 따라서 조사의 정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조사일정을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표본 당 최소 5회 이상의 재통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 번 전화해서 빈집이라고 표본을 바꾼다면 그것은 전화를 받기 위해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거주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하루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하나의 샘플 전화번호에 조사기간내에 수 차례의 재통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응답을 거부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2차 전화설득을 시도하여 예비표본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이는 표본 전화번호 하나 하나가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둘째, 어느 후보가 몇 % 앞서느냐하는 경마식, 흥미위주의 보도가 아니라 주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신속성과 경제성을 강요하면 조사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기관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 흥미 위주로 보도하면서 심층적인 분석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정확하게 조사된 특정 후보자 지지율과 같은 변수를 과장 보도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중요한 정치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유권자에 신비주의와 맹목주의 함정의 자각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다. 즉, 유권자가 비이성적인 잣대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한매일·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지난 7월에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단순한 후보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떤 이유와 경로를 거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보도하였다.(대한매일, 02/07/18) 이와 같은 시도는 언론 보도에서도 심층적인 분석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KSDC의 유권자 지지후보 경로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예비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 중 세대변수와 지역변수만이 후보자질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역변수 중 영호남 지역변수만이 후보자질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 다음에 후보자 자질 평가를 위해서 개혁성, 도덕성, 국가비전 제시 능력, 정치지도력, 대북대처 능력 등 5개 자질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후보별 종합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요인분석 결과, 후보 자질 평가 5개 변수들이 1개의 차원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대, 지역, 후보 자질 평가, 지지후보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효과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세대와 지역은 후보 자질 평가라는 경로를 거쳐 후보 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sup>5)</sup> 이러한 경로분석은 단순히 어느 후보가 몇 %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대한매일과 공동으로 지난 7월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60.9%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목해볼 만한 사항이다. 더구나, 유효 표본의 56%가 2차 이후 재통화 과정에서 완결되었으며 예약에 의해 완결된 유효 표본이 20.9%에 달했다는 사실은 역시 예약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대한매일, 02/07/18).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와 같은 엄격한 통계 원칙을 준수한다면 기관마다 결과가 차이가 나는 현상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5) 일반적으로 경로분석에서는 '표준화된 계수'들을 도출하여 각 변수들이 경로상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라는 분석과는 달리 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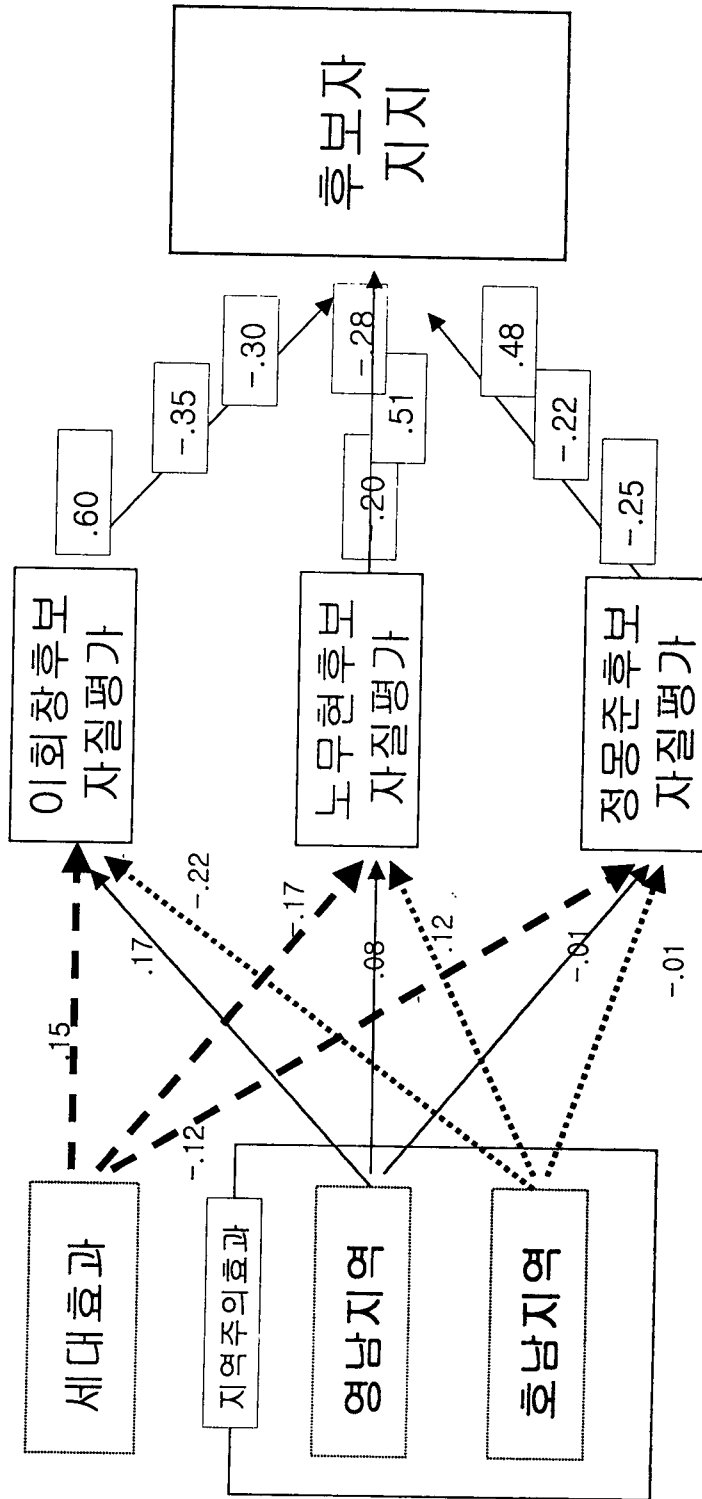
셋째, 투명한 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08조 4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 강령은 “선거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목적, 모집단과 표집틀, 표본대체 규칙,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가중치 부여방식, 기타 조사 및 분석절차와 관련된 사항” 까지 밝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선거법이 '질문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으며 투명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언론기관이 보다 분석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국민은 사실상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질 높은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수준 높은 분석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기관을 선호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 즉 '표준화된 계수' 수치가 클수록 경로상에서 그 변수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로분석 그림에서의 화살표는 영향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화살표위에 제시되는 수치가 바로 '표준화된 계수'이다.(홍두승, 2001: 259-260).

6) KSDC 분석에서 후보의 자질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답자의 출신 지역과 세대(연령)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과 세대는 자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지지 후보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그 강도는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가장 컸다. 출신과 자질평가의 관계를 보면 영남 출신 응답자는 비영남 출신에 비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자질을 높게 평가하고, 호남 출신 응답자는 비호남 출신보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자질을 높이 평가한다. 반면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지역별 영향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출신이 후보 자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화한 '표준계수'에 따르면, 영남 출신의 이 후보 평가 계수가 0.17인 반면 호남 출신의 이 후보 평가는 -0.22로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남 출신의 노 후보 평가는 0.12, 영남 출신의 노 후보 평가는 0.08로 나왔다. 노 후보의 출신 지역이 영남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구조의 현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이 후보 평가(-0.22)보다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정의원에 대해서는 영·호남 모두 표준 계수가 -0.01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세대와 자질평가간의 관계를 보면,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은 노 후보와 정의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안정을 회귀하는 기성 세대들은 이 후보의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효과가 이 후보에 대해 0.15, 노 후보 -0.17, 정의원 -0.12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노 후보나 정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노 후보와 정의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기성세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노·정 결합 구조로부터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 경로분석 결과, 유권자의 후보 자질 평가는 곧 바로 후보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자질 평가가 이 후보 지지로 연결되는 강도가 0.60으로, 노 후보 0.51, 정의원 0.48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이 후보 자질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 노 후보와 정의원에 대해 갖는 반감의 강도가, 노 후보와 정의원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 이 후보에 대해 갖는 반감의 강도보다 훨씬 크다. 이는 이 후보 자질 평가와 노 후보·정 의원 지지 간의 계수가 각각 -0.35, -0.30인 반면 노 후보 자질 평가와 이 후보·정 의원 지지간의 계수는 각각 -0.20, -0.28인 데서 잘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자질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의 결집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 후보나 정의원의 경우 자질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림1〉 후보지지 경로 분석 모델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는 1977년에 여론조사의 공개 및 배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감독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론조사 위원회까지 두어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공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김학수, 2000: 373)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가 본연의 책임과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정보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남는다면 우리도 프랑스식 모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응답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은 응답자들에게 조사 협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응답 거부율을 높이고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설문항목에 대한 무응답율을 높게 된다. 조사기관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선진 외국에서처럼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율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응답자 보상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체간에 과다경쟁으로 인한 조사비용 덩핑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 수주자들도 비용이 적게 드는 단지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성이 보장되는 조사를 요구하도록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어느 조사기관이 정확한 표본추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재통화 등과 같은 조사 규칙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사 면접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같은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학계와 외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각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추진해 볼 만 한다. 이러한 평가는 조사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의견과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짧은 선거 역사속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기존 조사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 여론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수주자, 여론조사 기관, 언론들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다.



〈KSDC 가구내 선택표〉

별첨

		성 인 수		
		1명	2명	3명
0명	여자(101)	나이 많은 여자(201) 나이 적은 여자(202)	제일 나이 많은 여자(301) 둘째로 나이 많은 여자(302) 제일 나이 적은 여자(303)	제일 나이 많은 여자(401) 둘째로 나이 많은 여자(402) 셋째로 나이 많은 여자(403) 제일 나이 적은 여자(404)
	남자(111)	남자(211) 여자(212)	남자(311) 나이 많은 여자(312) 나이 적은 여자(313)	남자(411) 제일 나이 많은 여자(412) 둘째로 나이 많은 여자(413) 제일 나이 적은 여자(414)
2명	.	나이 많은 남자(221) 나이 적은 남자(222)	나이 많은 남자(321) 나이 적은 남자(322) 여자(323)	나이 많은 남자(421) 나이 적은 남자(422) 제일 나이 많은 여자(423) 제일 나이 적은 여자(424)
	.	.	제일 나이 많은 남자(331) 둘째로 나이 많은 남자(332) 제일 나이 적은 남자(333)	제일 나이 많은 남자(431) 둘째로 나이 많은 남자(432) 제일 나이 적은 남자(433) 제일 나이 적은 여자(434)
4명	.	.	.	제일 나이 많은 남자(441) 둘째로 나이 많은 남자(442) 셋째로 나이 많은 남자(443) 제일 나이 적은 남자(444)
	남	자	수	

## 참고문헌

- 김학수. 1990. “선거여론조사와 언론.” 김광웅(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나남.
- 김형준. 2002. “대선 여론조사 뒤짚어 보기” 『신동아』, 통권 제518호.
- 안순철·김형준. 2002. “한국 전화여론조사의 새로운 모델 모색”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논문집.
- 선우동훈·윤석홍. 1999. 『여론조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선우영·이선주. 1998. 『선거와 여론조사』, 서울:지식공작소.
- 이남영. 2000. “빛나간 예측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저널』, 여름 통권 75호.
- 채서일. 1992.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학현사.
- 허명희. 2002.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 워크샵, 『선거여론 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논문집.
- 홍두승. 2001. 『사회조사분석』, 서울:다산출판사
- Groves, Robert M., and Robert L. Kahn. 1979. *Surveys By Telephone*. New York: Academic Press.